편견의 벽을 넘어서

김 동 훈/국민대 법대 교수,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사무처장

며칠 전 텔레비젼 프로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가 유춘수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았다. 인상적인 것은 설계시 경기장은 당연히 타원형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전통적인 방패연에서 영감을 얻어 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사고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기존의 생각들에 젖어들어서 사물을 일정한 각도에서만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비슷하면서도 구별되는 것에 편견이란 것이 있다. 고정관념이 단지 우리의 사고가 기존의 인식틀에 제한을 받는 것에 그친다면 편견이란 대상에 대해 자신의 성향이나 이해와 결부된 선입관을 갖는 것이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객관적인 상황이나 자료를 자신의 틀에 맞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고가 왜곡되고 편협해진다.

우리 사회는 매우 편견이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지배적이며, 출신지역에 따른 편견, 장애인이나 결손가정 등 약자들에 대한 편견,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출하면서 인종편견까지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그 대상에 대한 차별행위로 이어진다.

이러한 편견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벌로 인한 편견이다. 이른바 좋은 학벌이라는 것은 청소년기에 단 한번 치르는 선택형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고 불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정도를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단지 치열한 경쟁시험을 거쳐서 얻었다는 것 하나로 학벌서열을 둘러싼 거대한 편견의 덩어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몇몇 힘쓰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 더욱이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방비로 이러한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

어째서 학력 · 학벌을 둘러싸고 이렇게 강고한 편견의 벽이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기에는 왕조시대의 우리의 신분의식과 문벌의식이 녹아있고 천년을 버텨온 과거제도의 유산이 남아있고 관존민비의 사고도 일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는 우리 대에서는 이러한 편견의 벽을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편견의 벽을 깨는 실천은 항상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운동을 펼치면서 나의 학벌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의 학벌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알려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고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거추장스런 장애물을 하나 넘을 수 있었다.

온갖 편견이 넘쳐나는 왜곡된 세상에서 사람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 아니 보고자 노력하는 자세는 얼마나 귀한 덕목인가. PPFK